

노동신문엔 안 실린 김여정 담화 한미훈련 반발...표현 수위조절

“한미훈련은 재미없는 전주곡”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연장선

북한은 '반전의 시기'에 진행되는 한미군사훈련을 예의주시하겠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를 주민들에게는 공개하지 않았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조선중앙방송 등 대내 매체들은 한미훈련에 대해 “북남 관계의 앞길을 더욱 흐리게 하는 재미없는 전주곡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 김 부부장의 전날 담화를 2일 정오 현재까지 소개하지 않았다.

이는 김 부부장이 지난 3월 한미훈련 진행을 이유로 “3년 전의 따뜻한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한 담화를 노동신문과 조선중앙방송 등 대내 매체에 보도한 것과 대조적이다.

당시 김 부부장은 남북 군사합의서 파기와 대남 대화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정리가 능력까지 언급하는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까지 언급했다. 일단은 남북이 지난달 27일 단절됐던 남북 통신연락선이 13개월만에 복원한 만큼 선불리 비난하기 보다는 지켜보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조선중앙통신은 통신선 복원과 관련해 남북정상의 여러 차례 친서 교환에 따른 것이라며 “북남 관계의 개선과 발전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맥락에서 김여정의 이번 담화는 과거와 비교해 표현 수위도 낮았다고 할 수 있고, 한미훈련 보도가 이어지는 데 대한 일종의 무조건적인 반발의 성격도 엿보인다.

또 북한은 그간 대남·대미 관련 사안에 대한 입장이나 담화를 대내 매체에서 거의 공개하지 않으므로써 수위를 조절하고 불확실한 정세 변화 속에서 외교적 여지를 남기려는 태도를 보여왔다.

다만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한 발표는 대부분 대내 매체에도 게재해 ‘용납할 수 없는’ 사안임을 드러냈고,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입장은 상황에 따라 공개 여부를 저울질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합뉴스



닷새째 이어지는 터키 산불 터키 남서부 무글라의 지중해 휴양도시 마르마리스를 덮친 대형 산불이 1일(현지시간) 맹렬한 기세로 타오르고 있다.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 닷새째 이어지는 산불로 8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연합뉴스



월요일인 2일 일본 도쿄 시나가와역이 코로나19 예방 마스크를 착용한 출근길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일본은 도쿄올림픽 열하루째인 이날 코로나19 긴급사태를 전국 6개 지역으로 확대했다. 올림픽 개막 전에는 도쿄도와 오키나와현에만 긴급사태가 발효 중이었는데 확진자가 연일 가파르게 증가하자 사이타마가 나가와·지바현과 오사카부 등 4개 광역자치단체에 추가 발령한 것이다. /연합뉴스

4일 연속 1만명대...일본 코로나 긴급사태 확대

음식점 술 판매 중단 실효성 의문

일본은 도쿄올림픽 개막 11일째인 2일 코로나19 긴급사태를 전국 6개 지역으로 확대했다.

올림픽 개막 전에는 도쿄도와 오키나와현에만 긴급사태가 발효 중이었는데 확진자가 연일 가파르게 증가하자 사이타마·가나가와(神奈川県)·지바(千葉)현과 오사카부(大阪府) 등 4개 광역자치단체에 추가 발령한 것이다. 긴급사태 기간은 이날 말까지이며 애초 22일 종료 예정이던 도쿄와 오키나와의 긴급사태도 월말까지로 연장했다.

이시카와(石川)·효고(兵庫)·후쿠오카(福岡)현, 교토부(京都府), 홋카이도(北海道) 등 5개 지역에는 긴급사태보다 한 단계 수위가 낮은 만연 방지 등 중점 조치가 이달 말까지 적용된다.

당국은 긴급사태에 발령 지역에 대해 음식점이 주류를 제공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하지만 반복된 긴급사태로 요식업체가 경영 위기에 내몰린 가운데 당국의 요청을 따르지 않고 술을 판매하는 음식점이 곳곳에 등장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지친 주민들이 공원이나 길거리에서 단체로 술을 마시는 모습도 자주 목격된다.

일본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나흘 연속 1만 명을 웃돌았다. 백신 접종률이 낮은 40~50대를 중심으로 중증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감염 확산이 심각해지면서 ‘록다운’(도시봉쇄)을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전국지사회는 외출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록다운과 같은 방식을 검토하라고 일본 정부에 요구하는 긴급제언을 전날 마련했다. 법체계의 한계로 인해 유럽과 같은 방식의 록다운을 실행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고향 방문이나 여행을 자제하라는 메시지를 내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

광둥성 동관에 ‘중국판 MIT대’ 설립

“웨이강아오 프로젝트 일환”

중국 경제의 중심지인 광둥(廣東)성에 ‘중국판 MIT 대학’이 건립된다.

2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광둥성 동관(東莞)시에 ‘웨이강아오 대만구의 MIT’로 불리는 과학기술 분야에 특화된 대학이 신설된다.

이 대학은 ‘웨이강아오 대만구’(Greater Bay Area)를 중국의 ‘혁신 발전소’를 육성하려는 ‘웨이강아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설립된다. 웨이강아오 대만구 프로젝트는 광저우, 선전, 둥관, 후이저우, 주하이, 포산, 중산, 장먼, 자오칭 등 광둥성 9개 주요 도시와 홍콩과 마카오를 연결하는 거대 경제권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역점사업이다. ‘웨’는 광둥성, ‘강(港)’은 홍콩, ‘아오(澳)’는 마카오를 각각 뜻한다. 중국 정부는 ‘개혁·개방’의 시발점이자 경제성

장의 원동력인 주장(珠江)삼각주 지역을 웨이강아오 대만구 프로젝트를 통해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주변 지역과 일본의 도쿄도를 능가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메갈로폴리스로 만들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웨이강아오 대만구의 MIT’는 둥관시의 첨단과학기술 중심지인 송산호(松山湖) 지구에 건설되며, 오는 2023년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둥관시는 이 대학의 건설에 최소 100억 위안(약 1조7천 800억 원)을 투입하고, 330에이커의 부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둥관시는 중국의 제조업 중심지다. 전 세계 스마트폰의 4분의 1이 이곳에서 생산된다. 송산호 지구에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이자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화웨이(華爲)를 비롯한 중국 주요 기술기업의 연구시설이 입주해 있다. 샤오미(小米) 등판 시장은 혁신적인 대학을 건설하는 것은 홍콩과 마카오를 포함한 웨이강아오 대만구의 협력을 달성하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영국 과학자들 “백신 효과 시간 지나면 약해져”

“백신 캠페인 수년간 반복해야”

코로나19에 대한 백신 효과가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져 백신 캠페인이 수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영국 정부에 코로나19 대응을 조언하는 비상사태 과학자문구(SAGE)는 ‘코로나19 백신효과는 얼마나 지속되는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잉글랜드 공중보건국(PHE)과 임페리얼 칼리지, 버밍엄 대학 등의 바이러스트 및 전염병학자들은 “백신 접종을 통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예방과 중증 예방 효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

후 수년간 코로나19 백신 캠페인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취약계층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백신 재접종 최적 빈도를 현재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실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시간에 따라 백신의 감염 예방효과가 중증 예방보다 더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그 예로 이스라엘 보건 당국이 델타 변이 출현 이후 백신의 감염 예방효과가 떨어졌으며 중증 예방 효과는 그보다 약간 하락했다고 발표한 것을 들었다.

이스라엘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늦추기 위해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화이자 백신 3차 접종(부스터 샷)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가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